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배인경

승의여자대학교 교육복지학부 교수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on the improvement of happiness index of Seoul citizens

Inkyung Bae

Professor, Division of Arts&Childcare, SoongEui Women's College

요 약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이 증시되던 과거에 비해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노력이 증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실현을 이루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한정된 설문조사나 문헌조사와는 달리 문화예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수요(향유)와 공급 측면으로 나눈 후, 종속변수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과 인구구조변화의 통제 하에 시간적 범위를 10년 이상 설정한 후 정량적으로 패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가 클수록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양(+)의 영향을 끼쳤으나 문화예술 공급은 유의미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문화예술 향유에 기인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급을 통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간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수요계층 뿐만 아니라 문화무관심집단 나아가서는 문화소외계층의 능동적 참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주제어 : 문화예술, 행복, 삶의 질, 문화복지정책, 패널분석

Abstract In modern society, efforts to improv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are emphasized compared to the past when economic growth was emphasized.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realize the happiness of the people through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ultural Arts on the improvement of the happiness index of Seoul citizens by dividing them into demand (enjoyment) and supply side by setting Cultural Arts as independent variable, unlike existing limited surveys or literature surveys, under the control of change, the temporal range was set for more than 10 years and then analyzed quantitatively by pane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mand for cultural arts affects positively on the improvement of happiness index of Seoul citizens, but the supply of cultural arts had a meaningless effect. In order to improve the happiness index of the citizens of Seoul through supply,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xisting space and to promote cultural demand through differentiated cultural arts programs aimed at diverse classes but also the policy implication that cultural indifference group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cultural underprivileged groups should be increased.

Key Words : Cultural Arts, Happiness, Quality of Life, Cultural Welfare Policy, Panel Analysis

*This thesis is a revision of a part of the author's the master's thesis on "Effects of Cultural Arts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 Focused on the Five Major Regions in Seoul - "

Received August 31, 2018

Revised October 12,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1. 서론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국민들의 삶도 과거에는 소득 향상을 위한 노동과 생산, 물질적·경제적 조건에 집중되었다면 현재는 삶의 질 향상, 행복을 위한 소비와 문화생활, 나아가서는 문화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1]. 한국은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로 외적으로 볼 때는 국민 삶의 질이 향상 된 것처럼 보이나,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 30위,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며 여전히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현 정부는 물론 역대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 여 년간 매년 꾸준히 예산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국민 문화 향유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를 강화시켜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행복을 실현시키고자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지원과 정책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행복지수 향상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차이를 주었는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2].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수요(향유)와 공급 차원으로 나누어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두고 시간적 범위를 2005년부터 2015년으로 설정한 패널자료를 이용해 패널분석(panel analysis)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유와 공급요인에 기인한 차별화된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문화예술 향유가 클수록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문화예술 공급이 높을수록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2.1 문화예술과 행복

행복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사회학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좋은 삶(good life)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3]. 행복에 대한 견해는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관점에서 나뉘어 정의되고 있다[4].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은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고[5,6],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은 지역경제적인 측면, 사회복지적 측면, 환경적 측면, 생활편의적 측면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주지에서 느끼는 외적기준에 따른 행복감[7,8]으로 정의된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소득, 물질적 부의 축적이 우선시되고 정신건강을 경시하여 상대적으로 행복의 중요성이 오늘날처럼 강조되지 않았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평균수명의 연장, 주5일 근무 등의 환경이 조성되며 삶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시되는 시대이다[9]. 세계적으로도 군사력과 경제력이 우선 시 되기보다는 문화를 통한 행복, 성장, 국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10].

본 연구에서의 문화예술은 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문화예술’의 의미를 기초하여 국민들의 정신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해야 하는 활동으로 규정지어려 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 행복에 관한 국내연구는 문화예술의 향유 또는 참여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지 기능, 정신건강, 자아존중, 감수성과 창의력, 타인에 대한 배려 등으로 나누어 단일 사례분석, 사전·사후 비교설계나 실험-통제집단 설계를 통해 밝힌 연구가 있으며[11-13] 이러한 문화예술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제력, 문화자본, 지역적 특성, 교육수준(학력)이라는 다수의 국내연구[14-18]가 존재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을 여가의 범주에서 본 연구들[19-22]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예술 활동과 행복과의 절대적 관계보다는 실제 상대적인 여가 시간이 클수록 주관적 행복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밝히

고 있으며[19], 문화예술 관람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는 여가만족과 행복감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하였다[21,22].

2.2 문화예술 복지정책

대한민국에서 ‘문화복지’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 1981-1988년)때에 문화향유를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문화정책을 복지정책으로 다루며 출발하였다[24].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1988-1993년)때에는 적극적인 문화복지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이후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1993~9998년)에서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의 세계화를 강조하며 특히 지역별 문화복지 공간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1998-2993년)에서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칭하며 ‘창의적 문화복지국가’를 목표로 하였고[24],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8년)에서는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증대를 목표로 분배지향적 문화의 민주화를 강조하였다[23]. 이후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능동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일, 교육, 여가의 내용을 문화복지정책과 연결시켰다[25]. 박근혜 정부(2013-2017년 3월10일)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축(2013년 7월)하여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워 문화정책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예술인 복지법, 문화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10일-현재)는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에 따라 신뢰가 저하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정책의 위상을 되찾고, “문화·체육·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정책의 비전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누리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 복지정책과 삶의 질, 행복에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로는 문화복지 정책의 변화와 정책개발, 개선방안에 대한 질적연구[26,27]가 있었으며, 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힌 질적연구[28,29]도 다수 존재하였다.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여부를 다룬 문헌조사나 설문조사, 질적연구 등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실증적 패널분석 함에 차별성이 있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시·공간적 범위를 단기적으로 한정해 연구한 것과 달리 시간적 범위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이상 설정하고,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 전체로 확장하여 분석함에 차별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을 향유 측면과 공급측면으로 나누고 소득과 인구구조변화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수를 자료 구득 가능 범위 내에서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여 설정함에 차별성이 있다.

3. 연구설계

3.1 변수설정

첫째로 종속변수인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측정을 위해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의 실증적 자료와 동일한 항목의 통계를 통한 결론 산출을 위해 해당 기간에 공시된 시민행복지수(HI)를 설정하였다. 시민행복지수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공시된 서울거주 만15세 이상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자료로 서울시민의 주관적인 행복정도(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로, 건강상태·재정상태·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가정생활·사회생활의 만족지수를 산출한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사회경제학적 요인인 소득과 인구구조변화[3,14,30-33]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 쓰인 소득의 경우 한국에서는 기초단체별로 GDP나 GRDP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에 양광식 외[34]를 참조하여 소득의 대리변수로 지방세징수액(INCOME)을 설정하였다. 지방세징수액의 경우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의 수권에 의해 서울시 및 자치구가 관할하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징수된다.

독립변수인 문화예술에서는 문화예술 향유를 측정 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 문화활동 연간 총비용(AC)을 설정하였다. 이는 서울시민(성별·연령별·지역별·학력별 등)의 문화활동 유형별 연간 총 소비비용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10월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통계데이터에 공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의 공급측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요인은 지역적 요인[18,35-37]이라는 데에 기초하여 문화공간 공연장(CH),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 문화예술지원 현황(SUPPORT)을 설정하였다. 문화공간 공연장(CH)과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의 경우 각종 문화활동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현황의 파악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지표로 운영주체별·규모별·자치구별 공연장 현황,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문화의집, 복지회관, 구민(다목적)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으로 공표되어 있다. 문화예술지원 현황(SUPPORT)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연도별로 공표하는 서울시 문화예술 사업별 지원건수 및 금액 현황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문화예술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Variable

Variable		Unit	Analysis
Dependent Variable	Happiness	HI	0-10
Independent Variable	Control Variable	Income	INCOME
		Population	YOUNG
	Cultural Arts		AC
			CH
			CW
	SUPPORT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패널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기 위해 분석기간의 시계열적 특성과 분석대상의 횡단면적 특성을 결합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시간적 범위는 자료구득의 가능성을 고려해 2005년부

터 2015년까지 연도별 자료로 구성하였고, 시민행복지수(HI), 지방세징수액(INCOME), 청소년부양비(YOUNG),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AC), 문화공간 공연장(CH),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은 패널자료이며, 문화예술지원 현황(SUPPORT)은 시계열자료로 구성하였다. 지방세징수액, 문화예술지원현황,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은 로그변환을 통해 분산안정화 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Stata 15.0을 사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기술통계분석

서울시 전체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eoul City

	Obs	Mean	Std.Dev.	Min	Max
HI	275	6.62	0.32	5.95	7.46
INCOME	275	467120.10	414157.70	126432.00	3013939.00
YOUNG	275	17.99	2.70	12.10	26.30
AC	275	274414.10	57128.44	153080.00	432404.00
CH	275	9.71	19.70	0.00	169.00
CW	275	9.86	3.33	4.00	21.00
SUPPORT	275	9440425.00	4311274.00	38556000.00	18000000.00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시민행복지수(HI)는 평균(Mean) 6.62, 소득을 대리하는 지방세징수액(INCOME)은 평균 467120.10백만원, 인구구조변화를 대리하는 청소년부양비(YOUNG)는 평균 17.99%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수요를 반영하는 문화활동 연간 총 비용(AC)은 평균 274414.10원, 문화예술 공급을 나타내는 문화공간 공연장(CH)은 평균 9.71개,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은 평균 9.86개, 문화예술 지원현황(SUPPORT)은 평균 9440425천원으로 나타났다.

4.2 시민행복지수 결정요인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면 아래 Table 3와 같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HI	INCOME	YOUNG	lnAC*	CH	CW	lnSupport*
HI	1.000	-	-	-	-	-	-
lnINCOME	0.304***	1.000	-	-	-	-	-
YOUNG	-0.360***	-0.227***	1.000	-	-	-	-
lnAC	0.501***	0.194***	-0.478***	1.000	0.093	0.005	-0.046
CH	0.069	0.431***	-0.293***	-	1.000	-	-
CW	0.029	0.162***	0.207***	-	-0.127**	1.000	-
lnSUPPORT	0.254***	0.142**	-0.431***	-	0.061	0.017	1.000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시민행복지수(HI)는 소득을 대리하는 지방세징수액(INCOME), 문화예술 향유와 공급을 나타내는 문화활동 연간 총 비용(AC), 문화예술지원 현황(SUPPORT)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를 대리하는 유소년부양비(YOUNG)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지방세징수액, 문화활동 연간 총 비용, 문화예술지원 현황이 높을수록 시민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유소년부양비는 높을수록 시민행복지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분석방법의 선택을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Hausman Test.

	X2	P
Seoul City	15.420**	0.017

*<0.1, **<0.05, ***<0.01

4.3 패널분석

서울시 전체 자료를 통해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로 시민행복지수를 이용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을 나타내는 지방세징수액(lnINCOME)과 문화예술 수요를 나타내는 문화활동 연간 총 비용(lnAC)은 시민행복지수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인구구조변화를 대리하는 유소년부양비(YOUNG)는 시민행복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래 Table 5와 같다.

Table 5. Seoul City

	β	Std.Erro	t	p
lnINCOME	0.409**	0.181	2.270**	0.024
YOUNG	-0.034**	0.016	-2.180**	0.030
lnAC	0.341**	0.136	2.500**	0.013
CH	0.000	0.000	0.010	0.996
CW	-0.023	-0.023	-1.710*	0.088
lnSUPPORT	0.020	0.020	0.370	0.713
Constant	-8.362	7.165	-0.820	0.243
R ²	0.468			

*<0.1, **<0.05, ***<0.01

4.4 분석결과 종합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을 나타내는 시민행복지수(HI)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소득을 나타내는 지방세징수액(INCOME), 문화예술 수요를 나타내는 문화활동 연간 총 비용(lnAC), 문화예술 공급을 나타내는 문화예술지원 현황(lnSUPPORT)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현재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변화를 대리하는 유소년부양비(YOUNG)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수요를 대표하는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lnAC)의 경우에는 서울시민의 행복을 나타내는 시민행복지수(HI)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예술 공급을 대표하는 세 변수인 문화공간 공연장(CH), 문화공간 지역문화 복지시설(CW), 문화예술지원 현황(lnSUPPORT)의 경우에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세계를 선도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이룩해 낸 대한민국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 2017(Better Life Index)'에서 통계가 집계된 31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국민의 행복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정부는 다수의 기관 조사 발표와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문화활동 참여 내지는 문화관심집단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 일반 시

민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토대로 문화향유를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방면의 정책을 펼치며 문화복지실현을 통한 국민행복을 이루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하고 나아가 정책의 차별화를 이루기 위한 지역별 차이와 요인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사회경제학적 요인인 인구구조변화의 통계 하에 문화예술을 향유와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시·공간적 범위에서도 특정기간이나 특정지역이나 기관 또는 특정 프로그램참여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2005년부터 2015년까지로 10년 이상을 설정하고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넓혔다.

연구문제1에서는 문화예술 향유가 클수록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문화활동 연간 총 비용이 서울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서울시에서 문화예술 향유가 클수록 시민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문제2에서는 문화예술 소비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지역적 요인이며 문화행사 참여시 중요한 기준은 접근성이라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공급을 문화예술 공연장 수, 문화예술 지역문화 복지시설 수, 그리고 문화예술지원 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 공급의 높고 낮음의 여부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5.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안

현 정부는 물론 역대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나 연령[38], 지역에 의한 장벽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문화예술 향유가 클수록 행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문화소외계층 및 연령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수요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는 데에 우선적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구별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통해 수요자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펼쳐 문화무관심집단 뿐만 아니라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노출기회를 넓혀 지역의 문화예술 수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장기적으로는 궁극적 행복에

이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공급에서 문화공간 공연장과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수는 시민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지만 이는 서울시의 편리한 교통발달상황으로 인해 문화예술 소비여부에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진 접근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이나 시설 수를 증가시키는 등 양적 구축에 힘쓸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간을 보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해[39] 내·외적 문화예술 공급의 질적 수준을 높여 문화예술 수요계층의 관람편의와 소비욕구를 증대시켜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특정적인 집단이나 단시간 내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기준 하에 정성적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사회경제학적 요인과 인구구조변화를 주목한 후, 문화예술을 향유와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서울시 전체 지역에 각 번수별 영향력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분석자료의 한계도 있었는데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간 총 비용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무료입장 내지는 관람은 고려하지 않았고, 가격 차이에 따른 관람 횟수 등은 활용하지 않아 개인수준의 자료는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관련 통계자료가 잘 구성되어 있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간 영화관, 전시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와 같은 통계자료는 일정기간의 시간적 길이의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를 반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후속연구와 이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H. W. Yang. (2012).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Budget and Quality of Life : Panel Analysis of Data from OECD Countri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pp.1-20), Seoul : KAPA.
- [2] I. K. Bae. (2018). *Effects of Cultural Arts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Focused on the Five Major Regions in*

-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3] B. S. Kim, H. J. Kang & H. J. Kim. (2015).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Quality of Lif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Satisfaction and Citizen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3(3), 29-56.
- [4] B. S. Kim, S. M. Ahn & S. Y. Lee. (2015).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Macro Socioeconomic Factors on Public Happiness: A Study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3(2), 97-121.
- [5] J. E. Lee, M. S. Kang & S. J. Lee. (2014). The Effects of Urban Risk Perception on Happiness: The Case of Seoul Citizen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8(2), 559-588.
- [6] E. Diener.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7] Y. C. Choi. (2014).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al Policy Factors on National Happines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ECD Countries,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18(1), 1-22.
- [8] H. S. Ha. (1996). Analyzing the Determinant Factors of Quality of Life in Urban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0(2), 81-95.
- [9] B. S. Hong. (2012). Humanistic reflection about happiness, *The Journal of Kyoyang*, 7, 6-34
- [10] H. M. Yang. (2012). Cultural Policy in the Age of Creative Economy. *Korean Association of Culture Policy Studies*, 2, 37-49.
- [11] M. K. Ha & D. Y. Yoon. (2013). The Impacts of Cultural and Arts Learning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5), 157-177.
- [12] E. Y. Kim. (2011). The Impact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s for Qualitative Research,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19, 5-31.
- [13] J. I. Huh, G. H. Oh & J. H. Park. (2010). Improving Creativity through Art Education for the Students in a Culturally Isolated Region, *Journal of Art Education*, 27, 185-203.
- [14] Y. M. Hong, M. W. Lee & K. W. Yoon. (2015). A Study on the Determinant of Consumption of Art and Culture, *GRI REVIEW*, 17(1), 185-211.
- [15] S. H. Kim, K. W. Yoon & Y. M. Hong. (2013).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Cultural Consumption: Focusing on Demand and Suppl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1, 1-23.
- [16] S. Huh & S. Y. Yoon. (2013). A Study on Determinants of Consumption Expenditure of Cultural Services in Households,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1, 1-33.
- [17] C. H. Jung & S. H. Hwang. (2007).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Culture and Art Fragrance: Focusing on Acceptance of Performing Art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 159-181.
- [18] J. W. Sung. (2012). A Study of Effect of Cultural Consumption Capital on Consumption of Artistic-cultural Goods, *Review of Culture & Economy*, 15(1), 67-93.
- [19] M. W. Lee & K. W. Yoon. (2016). Impacts of Leisure Activities on Individual Happines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30(2), 264-287.
- [20] D. H. Cha, S. W. Ok. (2014).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on Self-regulation, Academic Achievements, and Self-esteem: Focusing on Fathers' Educational Level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1), 353-378
- [21] J. D. Kim & C. U. Heo. (2012). The Effects of Viewing Activities for the Artistic-Cultural Goods on Leisure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6(3), 361-374.
- [22] S. Y. Yoon. (2010). Access to leisure experience as an essential element of happiness, *Journal of Leisure Studies*, 8, 45-60.
- [23] S. H. Kim & H. S. Cho. (2008). Mid-term plan study of cultural welfare, *Studies of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08.
- [24] Y. K. Lee. (2015). A Study on Promotion of Cultural Welfare through Traditional Art, *Kore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25] B. R. Suh, H. R. Jang & T. S. Hyun.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History of Cultural Welfare Policy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29(12), 95-124.
- [26] H. J. Kim. (2013). The Trend of Cultural Welfare Policy in Korea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larging the Beneficiary of Cultural Welfare Programs.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26, 35-63.
- [27] H. Y. Koo. (2004). A Study On the Cultural Welfare Policy Development In the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14, 249-281.
- [28] S. U. Yun. (2013). Study on How to Invigorate Art Service through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 - Centered on the Aged Population,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25, 165-203.

- [29] J. H. Choi, Y. Lee, Y. J. Yu & T. S. Ahn. (2010). A Study about the Function of Culture Welfare Programs for Dissolving Social Exclusion about the Social Vulnerable Classes - A Qualitative Research Focused on the Culture Welfare Practition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1), 291-316.
- [30] T. L. P. Tang. (2007). Income and quality of life: Does the love of money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72(4), 375-393.
- [31] R. Veenhoven. (2004). Happiness as an aim in public policy: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 [32] M. R. Hagerty & R. Veenhoven.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 [33] J. Roback. (1982). Wages, rents,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6), 1257-1278.
- [34] K. S. Yang, S. Y. Kim & W. S. Suh. (2011).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Focused on Seoul Local Government,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6(5), 31-42.
- [35] T. Y. Bae. (2010). Establishing a local cultural policy through relative cultural index measurement,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4(3), 217-239.
- [36] J. J. Huh & M. J. Choi. (2009). An Effect of Regional Supply Level of Cultural Services on Household Expenditure on Cultural Consumption,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4(6), 161-169.
- [37] K. H. Jung & B. G. Choi. (2006). An Empirical Study of Cultural Divide and Policy Design for Culture Voucher,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0(4), 63-89.
- [38] C. J. Chang & B. G. Choi. (2017). Structural Relationship of Subjective Health, Ability to Work,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05-310.
- [39] S. H. Lee & C. S. Jeon. (2017). A Study of Improve Space for Culture Convergence of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ching hal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1), 299-306.

배인경(Bae, Inkyung)

[정회원]



- 2003년 2월 : 서울대학교 기악과 (기악학사)
- 2005년 8월 : 서울대학교 음악과 (음악학석사)
- 2018년 2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정책학석사)
- 2009년 10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Doctor of Musical Arts)
- 2011년 9월 ~ 현재 : 숭의여자대학교 교육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문화정책, 문화예술복지정책, 문화예술교육, 문화기술, 문화예술 융복합 콘텐츠
- E-Mail : pianistibae@gmail.com